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8년 8월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논문

30년 전쟁과 합스부르크 왕가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이 동 언

30년 전쟁과 합스부르크 왕가

The Thirty Year's War and Habsburg Dynasty

2008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이 동 언

30년 전쟁과 합스부르크 왕가

지도교수 전 지 용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8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이 동 언

이동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최영태 인

심사위원 전남대학교 교수 최진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전지용 인

2008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ABSTRACT

The Thirty Year's War and Habsburg dynasty

Dong-eon Lee

Advisor : Prof. Ji-Yong, Jeon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rty Years' War was the most disastrous and destructive war in the German territory at the time. It erupted by all the contradictions in Religion, Social, Economics, and Political policy in both Germany, and not to mention Europe in the seventeenth century. Faced with increasing pressure from the Habsburg dynasty in the Holy Roman Empire, the Bohemians raised a revolt on 23 May 1618, it gradually developed into a general war involving much of Europe. The war continued for 30 years and ended with the Treaty of Münster, which was part of the wider Peace of Westphalia on 24 October 1648. During the long course of the Thirty Years War the Habsburg dynasty were always in the heart of the conflict. This war rearranged the previous structure of power in Europe and became a significant turning point that led Europe into Modernization and Absolutism in history. This manuscript would like to explain the Thirty Year's War in detail and look into number of dramatic consequences that altered Western Europe in significant religious, political, and social ways.

목 차

I. 서론	1
II. 신성로마제국의 합스부르크 왕가	3
1. 17세기 합스부르크 왕가	3
2. 합스부르크왕가의 지배지역	4
3.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6
III. 30년 전쟁과 합스부르크 왕가	7
1. 종교적 갈등	7
1)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회의	8
2) 유니온과 리자의 대립	10
2. 정치적 갈등	13
1) 내부적 갈등	14
2) 외부적 갈등	15

3. 사회 · 경제적 갈등	17
1) 17세기 유럽	17
2) 17세기 독일	19
IV. 30년 전쟁의 진행과정	20
1. 보헤미아 시기(1618~1623)	20
2. 덴마크 개입 시기(1625~1629)	27
3. 스웨덴 개입 시기(1630~1635)	30
4. 프랑스 개입 시기(1635~1648)	33
V. 30년 전쟁의 종결	35
1. 베스트팔렌 조약	36
2. 30년 전쟁의 영향	37
1) 종교적인 영향	37
2) 정치적 영향	39
3) 사회 · 경제적 영향	40

VI. 결론 42

참고문헌 46

I. 서론

각 세기는 나름대로 그 세기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유럽의 역사와 얼굴을 바꾸어 놓은 세기를 말한다면 17세기를 들 수 있고 17세기의 유럽의 얼굴을 바꾸어 놓은 사건을 들자면 바로 30년 전쟁을 들 수 있다. 30년 전쟁은 17세기 독일 내는 물론 당시 유럽사회가 가지고 있던 종교·사회·경제·정치적 모순이 독일 땅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비극적인 전쟁으로 표출된 사건으로 복잡한 전쟁원인 만큼이나 전례 없이 긴 기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당시까지 유럽 최대의 전쟁이었다.¹⁾ 1618년 5월 23일 프라하(Prague)에서 보헤미아(Bohemia)인들이 신성로마제국의 합스부르크 왕가(Habsburg dynasty)의 종교적 억압에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키면서 시작된 이 전쟁은 유럽대륙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전한 유럽대륙 내의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어 30년 동안 지속되다 1648년 10월 24일 베스트팔렌(Westfalen) 조약으로 끝이 나게 된다. 전쟁의 당사자로는 보헤미아,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가 있으며 그 상대방에는 항상 신성로마제국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중심에 있었다. 당시 합스부르크 왕가는 유럽 최대의 왕가로서 합스부르크 왕가를 빼놓고는 유럽사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쏠 유럽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30년 전쟁은 종교적 전쟁이 전 유럽의 정치전쟁으로 변질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편적이며²⁾ 전쟁의 결과 신성로마제국이 사실상 붕괴되고 유럽의 근대화와 절대주의 국가 성립에 강력한 자극제가 되는 등 전쟁이전과 그 이후의 시대상황이 크게 변화되어 유럽사에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문제들은 17세기 유럽사를 연구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서양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30년 전쟁의 본질 연구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국내 학계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이 분야를 집중 연구하는

1) 송요태, “30年 戰爭의 原因” 『육군 제 3 사관학교 논문집』 (1990.5), p.179.

2) 송요태, “30년 戰爭과 17世紀 유럽의 危機” 『효성사학 논문집』 (1988), p.89.

논문이나 연구실적은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육군 제3사관학교 군사사학과 송요태 교수의 논문이 유일하게 존재하나 해외도서관의 번역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전쟁사연구 중심으로 사실상 30년 전쟁을 연구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더구나 30년 전쟁과 관련된 해외문서는 그 수량은 문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많은 언어³⁾로 기술되어 있어 30년 전쟁을 연구하는 데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30년 전쟁에 대해 전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의 중요성은 이 전쟁이 유럽사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자명하다 하겠다. 그리하여 본고는 유럽의 역사에서 30년 전쟁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30년 전쟁을 체계 있게 정리하면서 전쟁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내부적 갈등은 물론 유럽 각국과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제반 문제들과 갈등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30년 전쟁이 발생한 17세기 유럽의 정치·경제·사회적 위기상황을 살펴 30년 전쟁이 발생한 유럽사회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30년 전쟁의 주역을 담당했으며 당시 신성로마제국 황제였던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신성로마제국 내 각 세력 간 정치, 경제 및 종교적 갈등과 그 갈등 속에서 합스부르크 왕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유럽 열강들과의 복잡한 경쟁체제를 연구하여 30년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30년 전쟁을 전쟁의 참가국에 따라 4기로 나누고 각 시기에 따른 원인과 전개과정 및 결과를 비교적 자세히 살펴 전쟁 당시 합스부르크 왕가와 각 유럽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 및 각 시기 국제정세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복잡한 세력관계로 제국내부의 갈등이 국제적인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어 전 유럽세계가 휘말린 전쟁의 전말을 고찰하고자 한다.

3) 대략 예를 들어본다면 독일어, 체코어, 헝가리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라틴어, 이탈리아어 등이 있다.

셋째 30년 전쟁의 최종적인 종결을 가져온 베스트팔렌 조약이 유럽에 미친 영향과 30년간 독일 전역에서 벌어진 전쟁 결과로 변화된 독일 내부 종교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30년 전쟁이 합스부르크 왕가와 신성로마제국, 그리고 유럽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신성로마제국의 합스부르크 왕가

합스부르크 왕가는 유럽 최대의 왕가로서 합스부르크 왕가 전체의 역사가 신성로마제국의 단일 역사가 아니라 유럽의 역사라고 할 수 있으며 합스부르크 왕가를 빼놓고는 유럽사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전 유럽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30년 전쟁 당시 합스부르크 왕가는 전쟁의 한복판이었던 독일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30년 전쟁의 시발점인 보헤미아 전쟁에서 결말인 베스트팔렌 조약까지 전쟁의 전 과정을 담당한 30년 전쟁의 당사자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30년 전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합스부르크 왕가에 전반적인 이해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17세기 합스부르크 왕가

합스부르크 왕가는 1519년 막시밀리안(Maximilian) 황제 사후 지배해왔던 오스트리아는 물론 신성로마 황제의 지위까지도 위임받는다.⁴⁾ 그 후 합스부

4) 막시밀리안이 결혼을 통해 네덜란드를 상속받았고 그 성과는 유명한 6보격 시 "Bella gerant alii, tu felix Austria nube"(다른 나라들은 전쟁을 치르게 하라. 그대, 운 좋은 오스트리아는 결혼을 하라)를 낳았다.

르크가는 신성로마황제의 칭호를 계속 물려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왕가의 영토가 워낙 넓고 부유하여 당시 다른 독일 선제후들에게 합스부르크 왕가의 후보를 황제로 선출하도록 강요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7세기의 합스부르크 왕가는 너무 막강해서, 시샘과 불안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고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왕들과 합스부르크 왕가 사이에는 적개심과 견제가 끈질기게 지속된다. 게다가 17세기 합스부르크 왕가는 오스트리아의 신성로마 황제계열과 스페인(Spain)계열로 양분되어 있었고⁵⁾ 17세기 후반까지 다른 유럽 열강들은 대체로 프랑스에 동조하게 되어 합스부르크 왕가에 많은 위협과 피해를 끼치게 된다. 이러한 합스부르크 왕가와 유럽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제반 문제들과 갈등들이 총체적으로 불거져 터져 나온 사건이 바로 30년 전쟁이다.

2. 합스부르크왕가의 지배지역

17C 초 신성로마제국의 대부분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하

5) 송요태, “보헤미아 전쟁(1618-1620)” 『육군 제 3 사관학교 논문집』(1995. 5), p.68. 16세기 초반 합스부르크가의 황제이며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인 칼5세는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약을 맺은 후, 스페인은 그의 아들 필립2세(Philip II, 1556-1598)에게, 신성로마제국은 그의 형제 페르디난트 I세(Ferdinand I, 1556-1564)에게 물려주고 퇴위하였다. 그 후 스페인과 신성로마제국은 영원히 두개의 국가로 나뉘었다.

이종완, 『유럽의 합스부르크 왕가』 (공주: 공주대학교 출판부, 2003), p.163. 합스부르크는 스페인과와 오스트리아파로 분리되어 두 제국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한 혈통이라는 의식은 언제나 존재했으며 매 세대마다 항상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와 스페인가의 근친결혼을 시도하여 제국의 영토가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 같이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의 합스부르크가에 항상 반복되는 근친결혼으로 인한 유전학적 폐해로 스페인의 합스부르크가는 마침내 1700년 카를로스 2세의 사망으로 전멸되었다. 수세기를 통해 왕가의 정치적인 결혼은 모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가들은 이 잘못된 관행을 계속 고수하였다. 실제로 탐욕과 권력지향의 가족관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다시 시도되곤 했던 것이다. 특히 17세기 합스부르크왕가와 프랑스 부르봉(Burbon) 왕가와의 결혼정책은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전멸과 함께 스페인에서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즉위로 나타나게 된다.

고 있었다. 합스부르크왕가는 대를 이어 전해지는 세습영지를 가지고 있었던 바, 여기에는 신성로마제국 서부의 인스부르크(Insbruck)와 티롤(Tyrol), 라인(Rhine) 강 중류 유역의 몇몇 고립된 지역들, 그리고 알사스(Alsace)를 포함하는 Further Austria,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Inner Austria(스티리아(Styria)), 카린티아(Carinthia), 카니올라(Carniola) 공국들과 그라츠(Graz) 포함, 린츠(Linz) 중심의 고지(高地) 오스트리아 공국 그리고 비엔나(Vienna) 중심의 저지(低地) 오스트리아 공국 등이 포함된다.⁶⁾ 물론 1526년 이후에 포함된 모라비아(Moravia), 슐레지엔(Silesia) 및 루시티아(Lusatia)를 포함하고 있는 보헤미아 왕국과 헝가리(Hungary)⁷⁾도 세습영지였다. 합스부르크가는 이외에도 인척관계와 가톨릭 신봉으로 맺어진 바이에른과 같은 친 영방 및 대주교구들과 비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신성로마 제국의 나머지는 팔츠, 작센등과 같은 북부의 프로테스탄트파 영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⁸⁾ 합스부르크 왕가의 세습영지인 보헤미아 및 헝가리왕국은 1526년에 페르디난트⁹⁾를 왕으로 승인함으로써 세습영지에 포함되었다. 그의 이 지역들은 점증하는 터키(Turkey) 세력을 방호할 수 있는 곳이었고 그 국민들은 페르디난트를 통하여 터키의 진출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페르디난트는

6) G. Parker, *The Thirty Years' Wa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4), p.4.에 의하면 당시 비엔나는 인구가 모두 600,000명으로 이니 오스트리아 보다 더 적었으나 그러나 더 발전되었다.

7) 김평중, "Ottoman Turk의 東유럽 侵入" 『전북사학』(1985), p.274. Hungary는 1526년 모하치(Mohács) 전투의 패배를 계기로 국토의 대부분이 오스만 튀르크에 점령되었다. 서부 헝가리는 합스부르크왕가의 직접적인 지배 하에서 가톨릭 문화권에 속하게 되었고 중부 헝가리는 오스만 튀르크의 관할 하에 들어갔으며, 다만 동부 헝가리와 동남부의 트란실바니아(Transylvania)는 오스만 튀르크의 용인 하에 "트란실바니아 公國"으로서 종교적으로는 칼뱅교를 신봉하며 헝가리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승계하여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다. 오스만 튀르크를 축출하고 또 합스부르크의 전체 헝가리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분쇄하여 통일 헝가리왕국을 재건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트란실바니아 공국을 중심으로 하여 오랫동안 활발히 전개되었다,

8) 송요태, "보헤미아 전쟁(1618-1620)", p.68.

9) 황제 칼5세의 동생으로 후에 페르디난트 1세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된다.

지배지역에 가톨릭 정책을 수행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된 페르디난트는 1564년에 3명의 아들들에게 영지를 분할 상속하게 되는데¹⁰⁾ 이후에는 통치자의 위상과 귀족들의 위상이 달라졌다. 실제로 종교 개혁을 지지한 독일 제후들은 새로운 종교를 열망하였고 이제 오스트리아 공국 전체에 걸쳐 의회가 설립되었다. 저지 오스트리아의 경우 약 90%의 귀족들이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했는데 고지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이와 비슷해졌다.¹¹⁾ 이제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은 가톨릭 종주국으로 부상한 합스부르크가의 스페인과 신성로마제국이었다. 유럽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넣은 30년 전쟁의 어두운 서막이 점차 오르고 있었다.

3.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제국의 황제는 3명의 성직 선제후들과 4명의 세속 선제후들에 의하여 선출되었다. 황제는 이론적으로는 세계의 통치자였던 아우구스투스(Augustus)나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의 계승자였고, 그러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의 실질적인 권력은 제국의 내정에 관한 한 북부독일 제 지역의 대 제후들의 권력과 별 다름이 없었다. 실제로 제국의 직접적인 가신들은 대부분 독립적인 주권자들이었고 따라서 황제는 자신의 관할령인 오스트리아(Austria)만의 왕과 같았다. 제국의회가 형식상으로는 존재하였으나 대 제후에 예속되어 있는 자들은 엄격히 배제되었고 심지어는 군주들조차도 제국의회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들 제 신분들은 3개의 의사당에서 투표하였다. 첫 번째 의사당은 7선제후들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황제 선거 때에만 완전히 총원 되었으며, 일반 회합에서는 보헤미아 왕이 배제되었다. 두 번째

10) Parker, *The Thirty Years' War*, p.5. Inner Austria는 3남 Charles, Further Austria는 차남 페르디난트, 그리고 고지 및 저지오스트리아와 보헤미아 및 헝가리왕국만이 장자이며 황제인 Maximilian 2세에게 상속되었다.

11) 송요태, “30年 戰爭의 原因”, p.8.

의사당은 군주들의 의회였고, 세 번째는 제국 자유도시의 대중적 의회였으나 제 1 및 제 2 의회에서 동의된 안건만을 취급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회 구성원은 선거로 다시 선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황제의 뜻대로 교체하기도 사실상 불가능 하였던 것이다.¹²⁾ 이와 같이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는 이론 상으로만 매우 강력한 황제였지 실제로 황제의 세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신성로마제국은 수백 개의 독립적 정치단위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이들 중 중요지역들은 36개에 불과하였다. 당시 독일 내 실질적인 지배자들은 지방제후들이었다.¹³⁾

III. 30년 전쟁과 합스부르크 왕가

1618년 30년 전쟁이 야기된 원인은 신성로마제국의 종교, 정치, 그리고 사회·경제적 갈등 때문이었다. 이러한 제국의 종교, 정치적 갈등은 종교적 동맹 관계와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국제적 차원의 갈등으로 비화되게 된다. 따라서 30년 전쟁의 원인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신성로마제국이 안고 있던 종교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갈등에 대한 상세한 연구와 그 갈등 속에 포함된 유럽 열강들과의 복잡한 경쟁체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종교적 갈등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갈등은 여전히 지

12) 송요태, *op. cit.*, pp.192-193.

13) 남경태, 『인간의 역사를 바꾼 전쟁 이야기』 (서울: 풀빛, 1998), p.131. 신성로마제국 황제 역시 이름은 황제였지만 같은 시대 중국의 강력한 절대 권력자인 천자(天子)와는 전혀 다른 일종의 '명예직'에 불과했다.

속되고 있었다. 신성로마황제 칼5세는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약(Peace of Augsburg)을 체결함으로써 독일 프로테스탄트들은 원칙적인 면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종교적 상황이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약의 실천과 거리가 멀다는 것과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 지역 내에서 프로테스탄트의 증가 현상에 문제가 있었다.

1)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

1600년의 신성로마제국 전체의 인구는 약 2천만으로, 약 1,000개의 독립적이고 반 자치적인 작은 정치단위들로 나뉘어져 있었다.¹⁴⁾ 이러한 제국내의 정치적 갈등은 종교적 갈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막시밀리안 2세(1564~1576) 치세 동안과 루돌프 2세(Rudolf II)의 치적 기간에 제국에는 프로테스탄트 세력이 급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오스트리아 공국의 경우에 막시밀리안 2세는 1568년 및 1571년의 터키군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한 세금의 답례로 저지 오스트리아의 모든 귀족들과 가신들에게 프로테스탄트 예배의식의 자유를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1580년까지 저지 오스트리아 제후들의 약 90%가 프로테스탄트였고, 고지 오스트리아의 상황도 비슷하였다. 이에 비하여 양 공국의 가톨릭 교회는 쇠약해졌다. 대부분의 교구들이 비었고 집회들도 포기되었다. 1563년 저지 오스트리아의 경우 총 463명의 수도사와 160명의 수녀들이 있었을 뿐이며, 이에 더하여 55명의 부인, 199명의 첩 그리고 443명의 어린이를 보유하고 있는 122개의 수도원이 있었다. 이들은 점증하는 프로테스탄트 세력에 저항할 힘이 없었다. 제국을 동측 방에서 위협하는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위협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이 세력을 급속도로 신장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승세를 유지하고 있던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은 주요 도시에

14) Parker, *The Thirty Years' War*, p.15. 이때의 제국은 400여개의 제국기사령, 50여개의 제국 백작령, 몇 개의 공작령, 2개의 왕국 그리고 가장 작은 폴리티들(Polities)이 있었다.

학교를 설립하고 종교적 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 중앙상설위원회(central standing committee)를 설립하는 등 세력 확장에 전력을 기울였다.¹⁵⁾

이와 같은 프로테스탄트파의 신장은 보헤미아(Bohemia)와 헝가리(Hungary)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합스부르크 왕가 이외의 개별적인 독일국가들, 예컨대 작센(Sachsen), 팔츠(Pfalz) 그리고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등의 북부독일 지역과 가톨릭파를 견지하고 있던 바이에른(Bayern)까지 약화된 제권과 조각난 제도에 비추어 독립국가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성로마제국의 종교적 상황은 1555년의 아우크스부르크(Augsburg) 화약의 불합리한 점을 그대로 노출한 결과로 이는 30년 전쟁의 종교적 원인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약의 주요내용은

- ① 모든 영주는 종교 개혁권을 가지고 이는 영주의 고유권한으로 황제도 백성도 항의할 수 없다.
- ② 제후의 영지 내에서는 제후의 종교를 따른다
- ③ 영주의 종교에 반대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권리 즉 “이주권”을 가진다.
- ④ ‘교회령의 유보’로 성직자 가운데 개신교로 넘어간 사람은 성직을 상실하고 급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 ⑤ 개신교 영주들은 교회령의 유보저항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교회령내의 개신교를 신봉하는 귀족, 기사들은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 ⑥ 자유시(프랑크푸르트(Frankfurt), 보름스(Worms), 슈파이어(Spires), 슈트라스부르크(Strasbourg 등)에서 개신교 도시지만 가톨릭교회의 예배당이 존속하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아우크스부르크의 종교화약을 계기로 가톨릭과 개신교의 분리는

15) 송요태, “30年 戰爭의 原因”, p.179.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되었고 이 화약으로 독일 각 지방의 영주들의 황제에 대한 독립성을 일층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이제는 황제가 더 이상 각 영주국의 종교에 간섭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제는 각 영주가 사실상 자기 영지내의 교회의 수장이 되었으며 영주의 종교가 일반 백성들에게 강요되었고(cuius regio, eius religio : 제후의 영지 내에서는 제후의 종교를 따른다)¹⁶⁾교회는 국가에 종속된 지위로 전락하게 되어, 영주는 교회의 인사, 재정, 교리적 문제까지도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아우크스부르크의 신앙 고백을 추종하는 프로테스탄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칼뱅주의자들을 비롯한 다른 신자들은 계속하여 이단으로 간주되었으며, 박해를 면할 수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감안해 볼 때, 아우크스부르크 화약은 양측에서 무력으로 상대방을 이길 자신이 없을 때에만 유지될 수 있는 잠정적인 휴전에 불과하였고, 이러한 미완성 평화는 점증하는 칼뱅파로 인하여 가톨릭 대 프로테스탄트의 대립을 첨예화시켜 30년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2) 유니온(*Union*)과 리자(*Liga*)의 대립

그 당시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토에서는 가톨릭과 루터파, 칼뱅파 사이의 관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다. 1607년에 제국도시인 도나우비르트(Donauwörth)¹⁷⁾에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게 된다. 그날의 행

16) 이는 또한 종교 선택의 자유가 영주들에게만 주어졌으므로 영주 아래에 있는 일반 주민들 가운데에는 주어진 종교에 만족하지 못한 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17) *ibid.*, p.128. 1607년에 제국도시인 도나우비르트에서 다수를 차지하던 개신교도들이 성 마르크의 날 행사를 벌이고 있는 가톨릭 교도들을 공격함으로써 양측간에 싸움이 일어났다. 작은 제국 도시 도나우비르트는 전부 루터파였으나 베네딕트 수도원이 살아남아 있었는데 이 수도사들이 그 도시를 가톨릭 울타리 안으로 되돌리기로 결심하고 1606년 성마가 축제일에 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축하행진을 벌렸다. 이 행진에 분노한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투석을 함으로써 방해한 사건이다.

사를 후원했던 루돌프 2세는 이를 황제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간주하고 바이에른의 막시밀리안(Maximilian)에게 개신교도들의 법적 보호를 철회하는 제국파문령을 강화하라고 명령했다. 막시밀리안은 즉시 명령을 수행했다. 막시밀리안이 1607년 12월에 레겐스부르크(Regensburg)에서 거의 100킬로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도나우비르트를 점령하자 노이브르크(Neuburg)公이나 작센(Sachsen)선제후 같은 온건한 루터파 지도자들은 황실궁정회의에 프로테스탄트 대표를 증가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황제 대표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자 프로테스탄트제후들은 동맹형성에 박차를 가하였고 노이부르크公이나 작센 선제후 같은 온건한 루터파 지도자들도 팔츠백의 칼뱅파와 합류하게 된다. 또한 비록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1608년 레겐스부르크 의회에서 1552년 이래 세속화된 모든 교회령의 회복이 천명되자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파 대표들이 황제로부터 이탈하였고 이들 이탈자들은 5월 12일 아우하우젠(Auhausen)에서 프로테스탄트 동맹인 유니온을 형성한다.¹⁸⁾ 이러한 대토지 소유자들 중에는 반동이 일어나기 전 몇 해 동안에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로 전향한 자들이 있었고, 더구나 이들 중에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최대의 지원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1618년에 프로테스탄트 종교와 헌정적 자유를 부르짖은 자들은 하층귀족 및 젠트리 출신들로 이들은 쇠퇴해가는 그들의 경제력과 정치력을 실감하고 있었으며 특히 “황제칙서”¹⁹⁾ 아래에서도 그들의 지위가 계속 하락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런데 섭정위원회는 가톨릭 법안²⁰⁾을

18) Parker, *The Thirty Years' War*, p.24. 너르틀링겐 근처 아우하우젠의 세속수도원 참사회 회의장에서 6명의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은 공격을 받을 시 함께 전투에 참여한다는 유니온으로 알려진 프로테스탄트 상호동맹에 사인했다.

19) 메리 폴브룩,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 김학이 역 (서울: 도서출판 개마공원, 2000), p.91. 보헤미아의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은 1609년부터 일련의 종교적·정치적 특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그 해에 합스부르크가의 황제 루돌프 2세가 동생 마티아스와의 갈등에서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 각종의 특권을 보장하는 ‘황제칙서(Letter of Majesty)’를 공포했기 때문이었다.

20) 송요태, “보헤미아 전쟁(1618-1620)”, p.74. 이때의 주요법안을 보면, 수도에 문서검열 신청, 신교도 목사들에게 가톨릭 기부금 지급 금지, 비 구교도의 관직임용 금지 등이었다.

결정하여 이러한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을 또 다시 자극하였다. 보헤미아의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은 도덕적으로 필요하다면 정치적, 군사적으로 지원하여 자신들의 부족한 힘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해외의 동맹을 찾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루터파나 칼뱅파의 구분이 필요 없었다. 동맹에 포함될 자들은 1610년에 고도(古都) 프라하에 프로테스탄트 교회설립(황제칙서 후에 도시 안에 세워진 3개중 하나)에 3,000 테라(thalers)를 기증한 영국의 제임스 1세 (James I)²¹⁾를 포함하여, 작센, 브란덴부르크 그리고 팔츠의 선제후들과 브룬즈윅(Brunswick), 헤센(Hessen) 및 뷔르템베르크(Württemberg) 등의 통치자들이었다.²²⁾ 이것을 계기로 1609년 6월 10일 뮌헨에서 가톨릭 동맹인 리자가 형성되어 양측은 종교적 대결양상이 점증하였다. 그러나 유니온은 교파간의 갈등문제와 클레이브-율리히(Cleves-Jülich)계승 문제²³⁾로 루터파인 작센(Sac

21) 김상태,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과 Jülich·Kleve상속분쟁문제” 『세종대학 논문집』 (1983), p.188. 스튜어트(Stuart) 왕조의 창시자인 제임스 1세는 1612년에는 Union에 가입하고 클리브·율리히 분쟁을 중재했다. 1613년에는 딸을 팔츠(Pfalz)의 선제후 프리드리히(Friedrich) 5세에게 출가시키고, 그의 아들 헨리(Henry)를 스페인의 펠리페 3세의 딸과 결혼시켜 대륙평화의 중재자가 되고자 했으나 30년 전쟁 때에 프리드리히 5세가 敗北하자 대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으나 영국내의 사정이 적극적인 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22) Parker, *The Thirty Years' War*, pp.43-44.

23) 김상태,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과 Jülich·Kleve상속분쟁문제”, p.179. 1609년 5월 9일에 클리브(Kleve)公 요한 빌헬름(Johann Wilhelm) 이 남계 후사를 두지 못하고 사망했다. 그가 남긴 영토는 클리브(Kleve)를 비롯하여 마르크(Mark)·율리히(Jülich)·베르크(Berg)·레벤스베르크(Ravensberg)·라벤슈타인(Ravenstein) 등인데, 이 공국들의 상속자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가 불분명했고, 이 공국들을 전부 상속하려는 영방국가가 하나 이상이었으므로 상속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나 노이브르크의 팔츠伯(Pfalzgraf von neuburg)을 위시하여 황제·작센(Sachsen) 등이 이 지역의 상속을 주장했다. 이 공국들이 라인 강 하류지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정학적인 여건에 따라서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의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요한 빌헬름 공의 사망으로 일어난 상속분쟁은 독일적인 사건이지만 국제관계의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유럽사적인 성격을 띤 사건이 되었다. 이 라인강 하류지방의 공국들에 대한 상속문제는 인적인 권력정치적인 문제이지만 종교개혁의 마지막 단계에서 종교와 결부된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신교국가들(Union, 영국, 네덜란드)과 프랑스는 이 지역을 신교제후가 상속하기를 원했고 반면에 가톨릭 국가들(Liga, 황제, Spain)은 가톨릭 제후가

hsen)의 적대감을 조장하게 되고 단합되지 못했으며 이는 리자의 경우도 비슷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의 갈등은 스칸디나비아(Scandinavia) 지역과 프랑스, 스페인에서는 나라가 하나가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반면 독일에서는 오히려 크고 작은 영방 국가와 자유도시로 분열되어, 종교 뿐 아니라 집차 사고방식과 문화까지도 달라졌다. 이렇게 종교개혁으로 인한 종교적 갈등은 독일에서 정치적인 분열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문화차이도 뚜렷하게 만들어 복잡한 30년 전쟁의 중요한 원인으로 진행되게 한다.²⁴⁾

2. 정치적 갈등

신성로마제국 내부의 종파적 분열, 영방제후에 대한 지방 신분의회의 저항, 제국 권력에 대한 영방제후들의 저항들이 독일지역에서 쟁패를 벌이면서 겪는 내부적 갈등과 동시에 독일 내부의 갈등에 빠져든 여타 유럽 국가들과 합스부르크 왕가 사이의 외부적 갈등이 연관되어 30년 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상속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특히 종교동란을 종식시킨 프랑스의 앙리 4세는 가톨릭으로 개종했지만 그의 大構想을 실현하기 위해서 합스부르크가의 신성로마 황제가 라인강 하류 지방에다 세력을 부식하려는 의도를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된다고 보고, 신교동맹과 결맹하여 北獨의 상속문제에 간섭하려고 했으므로 이 상속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정치, 종교적 대립은 전쟁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었다.1609년의 클리브·울리히 상속분쟁은 앞으로 살피게 될 30년 전쟁을 직접적으로 야기 시키지는 않았으나 30년 전쟁의 전초전의 성격을 띠며 세력판도를 합스부르크파와 반 합스부르크파로 양분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24) 마틴 키친, 『케임브리지 독일사』, 유중희 역 (서울: (주)시공사, 2001), p.119.

1) 내부적 갈등

마틴 루터가 1517년 95개조를 발표한 날부터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사이의 종교논쟁은 정치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교회는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소유한 집단체였고 그들의 싸움은 바로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이익과 연결되었다. 게다가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의 싸움은 제국의 종교적 동맹 관계와 정치적, 영토팽창 욕구들이 얽혀 있었다. 그리하여 제국의 종교, 정치적 갈등은 국제적 차원의 갈등으로 비화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신성로마제국은 수백 개의 독립적 정치단위로 나뉘어 있었으며 황제의 실질적인 권력은 제국의 내정에 관한 한 다른 지역의 대 제후의 권력과 별 다름이 없었다. 비록 제후들이 터키의 위협 같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종파를 넘어 협력했지만,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과당이 형성되었고, 제국의 제도들은 점차 붕괴되고 있었다.²⁵⁾ 칼 5세가 사망한 뒤, 합스부르크의 황제들은 범제국적인 문제보다는 내적이고 왕조에 관련된 지엽적인 일에 관심을 쏟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황제가 종파의 시대에 제국차원의 문제에 대한 통제권을 상당 부분 상실했던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당시 보헤미아의 정치적 상황은 당시 유럽전역의 일반적 현상인 통치 권력의 분산과 관계가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봉건체제가 붕괴되고 절대왕정이 수립되었으나 아직도 귀족회의의 권력이 잔존하고 있었고 귀족계급의 구제도에로의 복귀의지와 통치자의 통치 권력과의 충돌은 불가피했던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1618년 합스부르크 왕가와 보헤미아와의 충돌은 30년 전쟁의 출발점으로 내부적인 원인이 된다.

25) 폴브룩,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 p.90.

2)외부적 갈등

17세기 당시 유럽은 각국의 패권과 견제의 장으로 복잡한 외교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합스부르크 왕가의 또 다른 일파인 황제 카를로스 1세(Carlos I) 시대의 스페인은 유럽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다. 비록 필립2세(Felipe II) 시대에 많은 대외전쟁과 궁정의 낭비로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일반적으로는 지배적인 세력이었다. 1600년 이후 상황이 그렇게 명료하지는 못하였지만 프랑스와 휴전하고 네덜란드와 전쟁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안정을 유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앙리4세(Henry IV)는 비록 개방적으로 프로테스탄트 동맹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일 및 네덜란드의 프로테스탄트파들을 고무시키는 방법으로 스페인을 괴롭혔다. 그리하여 클레이브-울리히 계승 문제가 도래하자 중재 역할에 나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그는 프랑스의 아주 가까운 지역에 합스부르크 세력의 증대를 허용하지 않으려 한 것이다. 왜냐하면 스페인 및 신성로마제국과 프랑스는 기나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바, 이들의 세력이 증대되는 것은 곧 너무나 많은 침략로의 개방 또는 프랑스 확장에 필요한 진로의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앙리 4세는 주변에 지원세력을 구축하려 하였고 침략 군대를 편성하기 시작하였다.²⁶⁾ 그러나 그는 1610년 5월에 암살당하고 말았다. 그가 죽자 프랑스에는 섭정정부가 수립되었고 반합스부르크가 정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와 합스부르크왕가의 갈등과 견제는 30년 전쟁에서 터져 나와 30년 전쟁의 방향과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갈등은 스페인과 프랑스의 갈등과는 달랐다. 막시밀리안 치하에서 신성로마제국에 병합되었던 네덜란드가 칼 5세의 퇴위 후 그의 아들 필립 2세에게 들어갔는데 필립 2세의 강력한 획일주의의 통합정책에

26) 송요태, “30年 戰爭의 原因”, p.13.

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독립을 위해서 강력히 대두하고 있었다. 칼 5세의 퇴위 후 네덜란드가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에 속하게 되자 필립 2세는 산업이 발달하였던 이 지역을 경제적인 이유로 칼 5세와는 달리 완전 통합을 하려 했다. 네덜란드의 애국지사 에그몬트(Egmont), 호른(Hoorn), 몽티니(Montigny)의 사형을 시점으로 해서 네덜란드 독립운동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독립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알바(Alba)와 파르마(Parma)²⁷⁾의 잔혹한 탄압정책 때문에 네덜란드의 독립운동이 더 이상 계속되기 어려운 상황 하에 놓였으며, 이때 독립운동을 지지해 준 나라는 프로테스탄트를 옹호하고 있었던 영국이었다. 위치로 볼 때 네덜란드는 영국과 같이 중서유럽 변경의 비호(庇護)된 장소에 놓여있어 이베리아 반도의 식민국가와 중북 유럽사이의 중개상의 지위를 차지하기에 매우 적합하였다. 루터의 95조항의 반박문 이래 네덜란드에는 서부의 벨기에와는 달리 칼뱅주의가 지배적이어서 反종교개혁의 선봉이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필립 2세 치하 스페인과는 정치적, 재정적 이유 외에 종교적인 관계로 적대관계가 지속되었다.²⁸⁾ 12년간의 휴전으로 전쟁상태가 종결되자 많은 스페인인들은 정부의 국제정치적 실패의 증거로 간주하였고 또한 무역에도 손실을 당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반면에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식민지를 괴롭혔고 쉘트(Scheldt)강을 폐쇄²⁹⁾시켰을 뿐만 아니라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한 적대감을 고조시키면서 프

27) 칼 하인츠 츠어뮐렌,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정병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p.211. 네덜란드에서는 1566년부터 1609년까지 또한 1621년부터 1648년까지 스페인의 통치우세에 대항하여 민족의 자유전쟁이 발발하였다. 스페인 왕 필립2세는 1559년에 배다른 누이인 파르마를 네덜란드의 통치권자로 임명하였다. 1566년에 귀족들은 박해를 멈추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파르마는 물러섰지만 총대장 알바(1567~1573)공작은 승인을 취소하고 스페인의 절대주의와 가톨릭의 관점들을 실행시키고 말았다. 알바의 잔인한 통치아래서 약 18,000명이 처형당하였다. 그 결과 네덜란드인들의 항거가 윌리엄공의 지도로 진행되었다.

28) 이규하, “Cromwell 治下의 英國의 對外政策” 『전북사학』 (1997), pp.283-284.

29) Parker, *The Thirty Years' War*, p.43. 6척의 대 전선들이 1615~16까지 2년간 말라카 해협을 순항하면서 아메리카 대륙 내 스페인 식민지를 급습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스페인 및 포르투갈 선박들을 파괴하였다.

로테스탄트 세력들과 연합을 도모하였다. 특히 1618년 모르스(Maurice of Nassau)공의 등장³⁰⁾으로 전쟁준비를 강화하여 결국은 30년 전쟁에 제국 이외의 세력으로서 국제전쟁 양상을 빚어내게 되었다.

3. 사회 · 경제적 갈등

16세기 후엽의 유럽의 경제상황은 17세기의 유럽에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후퇴는 수입을 감소시키고, 갈등을 고조시켜 새로운 방어성체나 보루의 신축으로 말미암아 각국의 재정은 빚만 점점 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재정적 우려가 많은 통치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제 신분들과의 갈등은 물론 반유대주의나 마녀사냥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신성로마제국 내부의 긴장과 유럽의 국제적 긴장이 결합되어 30년 전쟁의 원인이 된다.

1) 17세기 유럽

16세기 초 유럽사회는 일반적으로 인구성장의 세기이며, 경제성장의 세기이다. 유럽의 배들은 전 세계를 탐험하고 다녔으며, 종교 개혁가들은 유럽인들의 관심을 부패하고 세속적인 교회로부터 인간 자체로 돌리게 했다. 농민들은 농산물 수요가 크게 늘어나 높은 이익을 얻었으며, 경제가 발전하자 도시들도 번성했다. 그러나 16세기 중반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신대륙의 많은 금, 은이 유입되자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야기되었고, 종교 갈등으로 다른 종교에 관용을 베풀기 보다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폭력행위가 빈발하

30) 송요태, “30년 戰爭과 Gustav Adolf”. 『육군 제 3 사관학교 논문집』 (1993. 5), p.78. 30년 전쟁에 영향을 미친 실질적인 전술적인 개혁은 네덜란드의 Maurice von Nassau 공에 의해 이루어졌다. 16세기 후엽의 네덜란드군은 프랑드르군의 영향으로 스페인식 편제였다. 모리스는 먼저 창병을 감소시키고 musket 소총병을 증대시켰다.

었다. 농업생산력이 늘어나는 인구를 따라가지 못하자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고 실업과 기아문제도 심각해졌다. 계속된 흉작³¹⁾으로 인하여 17세기 초기근과 궁핍이 만연했다.³²⁾ 유럽에 도래한 경제적 위기는 17세기 유럽의 경제적 쇠퇴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17세기 초엽의 경제적 쇠퇴는 유럽 각 국에 경제문제를 야기 시켜 1610년대와 1620년대에 유럽 경제 전체는 정체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물가의 앙등과 산업의 쇠락과 종교적 갈등으로 17세기 초 유럽은 전쟁을 예감하게 되었으며 너나 할 것 없이 군대를 육성하고 성을 쌓고 市壁을 건설했다.³³⁾ 17세기 중반에 수많은 유럽국가에서 봉기, 혁명, 내전 같은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의 프롱드 난³⁴⁾과 영국혁명이지만, 그 밖에도 귀족이나 한 지방 전체가 중앙집권적인 군주의 압력에 대항한 봉기도 빈발했다. 그러한 소요사태에 대해 결정적인 원인 한 가지를 제시하기란 불가능하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봉기가 대부분 중앙집권국가 건설(특히 중앙 관료기구의 성장으로 지방 정부의 자치가 침해당하던 현실)과 관련되어 있었고, 이는 다시금 유럽의 국제적인 경쟁체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시의 국제정세 아래서 유럽 국가들은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이는 다시금 직접세를 증가시켰다. 그에 따라 지방에 대한 재정적 요구와 수취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지방과 그 대표인 귀족들이 봉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³⁵⁾

31) 폴브룩,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 p.87. 17세기 초 사회적 에너지가 감소한 것은, 평균 기온이 하락해 곡물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농업 생산이 감소한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 시기는 소빙하기(Little Ice Age)라고 일컬어지는 시기로, 얼어붙은 겨울 장면이 브뤼겔(Peter Breughe)의 그림에 잘 묘사되어 있다.

32) 송요태, “30년 戰爭과 17世紀 유럽의 危機”, p.89.

33) 폴브룩,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 p.87.

34) 종교전쟁을 통해 강화하던 왕권에 저항해 1648년 ~ 1653년에 파리고등법원과 대귀족들이 일으킨 반란이다. 이 반란은 역설적으로 프랑스의 절대주의를 크게 촉진시킨다.

35) *ibid.*, p.88.

2) 17세기 독일

이 시기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독일 역시 기근과 궁핍이 만연했고 유아살해와 유대인에 대한 테러도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 아마도 이러한 사회적 긴장은 16세기와 17세기 초에 마녀사냥이 광범위하고 격렬하게 벌어지는 데(다른 요인도 중요했겠지만)한 몫 했을 것이다.³⁶⁾ 도시의 부유한 이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거대한 건축물도 많이 들어섰으나 1인당 소득은 계속 떨어졌다. 아우크스부르크에서는 주민의 4분의 3이 재산이 전혀 없는 이들로 분류되었다. 계속되는 악천후로 흉작이 이어졌으며 전염병까지 창궐하였다. 1561년부터 1585년 사이에 뉘른베르크에서는 주민 4만 5000명 가운데 2만여 명이 사망했다.³⁷⁾ 경제적인 어려움과 절대주의 국가의 압력에 맞서 1575년부터 1630년 사이 여러 지역에서 농민반란이 일어났는데 특히 남부 독일과 합스부르크 영토 내에서 발생했다. 도시민의 권리와 특권이 줄어들자 그에 항의하는 반란도 독일 전역에서 일어났다. 많은 도시의 반란이 반유대주의 성격을 띠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1612년과 1616년 사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일어난 페트밀히 반란³⁸⁾이었다. 당시 프랑크푸르트의 장인들과 상인들은 네덜란드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주해옴으로써 경제적인 불황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프랑크푸르트 도시민들의 불만과 고통은 1614년 8월 유대인들에 대한

36) 폴브룩, *op. cit.* 여성은 흉작, 절도, 인간과 가축을 가리지 않고 내습하던 돌림병 등 잇따라 발생하는 재해의 속죄양으로 선택되기 일쑤였다.

키친, 『케임브리지 독일사』, p.127. 혼란한 시기에 과격한 반유대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것처럼 마녀사냥도 불안한 사회분위기가 낳은 고통을 해소하는 심리적 대응 방법 중에 하나였다.

37) 폴브룩, *op. cit.*, p.126.

38) *ibid.* 생강빵 제조업자인 빈첸츠 페트밀히는 시의회가 사회적,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란을 선동했다. 당시 프랑크푸르트의 장인들과 상인들은 네덜란드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주해 옴으로써 경제적인 불황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1616년 시의회는 이 반란을 수습한 후 페트리히를 처형했다. 그 다음해에 발표된 제국 칙령은 유대인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했으며 그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왔다.

대대적인 테러로 이어졌다. 혼란한 시기에 과격한 반유대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것처럼 마녀사냥도 불안한 사회분위기가 낳은 고통을 해소하는 심리적 대응 방법 중에 하나였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위기는 그 지역이 처해 있던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독특하고 복합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신성로마제국 내부의 긴장과 유럽의 국제적 긴장이 결합되어,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지속된 일련의 충돌이 빚어졌으니, 그것이 30년 전쟁이다.

IV. 30년 전쟁의 진행과정

30년 전쟁은 신성로마제국의 내전으로 시작되었지만 덴마크와 스웨덴, 그리고 프랑스 등이 프로테스탄트를 지원하여 참전하게 됨으로써 유럽의 대 전쟁으로 확장되어 30년 동안 지속되었다. 1618년에 시작하여 1648년에 끝난 30년 전쟁이 제국 내부의 갈등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전 유럽을 전쟁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게 되는지 그 전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참전국에 따라 4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보헤미아 시기(1618~1623)

주지하다시피 1618년 30년 전쟁의 도화선이 된 보헤미아 전쟁이 야기된 원인은 17세기 초부터 쌓여온 신성로마제국의 정치, 외교, 경제, 그리고 종교적 갈등 때문이었다. 당시의 보헤미아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가장 중요한 통치기반이었기 때문에 황제가 추구하는 정책과 보헤미아 귀족들 간의 갈등은 심화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보헤미아의 경우는 후스(Huss)의 강력한 영향으로 거의 프로테스탄트화 되어 있었던 데다 보헤미아 귀족 및 도시민의 90%가 프로테스탄트이었고, 이들은 또한 합스부르크 왕

가의 정치, 종교적 반항세력이었다. 보헤미아는 1526년에 제국황제 칼 5세(Karl V)의 동생 페르디난트 1세를 보헤미아 및 헝가리 왕으로 승인함으로써 합스부르크가의 세습영지에 포함되었다. 이 왕국은 제국의 동쪽변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점증하는 오스만 튀르크 세력의 위협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는 양측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페르디난트 I 세는 가톨릭 정책으로 제국을 통치하였다. 그런데 1564년에 고지 및 저지 오스트리아공국과 보헤미아 왕국은 황제 막시밀리안에게 분할 세습되었는데 통치 권력이 약해져 이들 세습영지는 프로테스탄트화 되었다. 그러나 1590년 이후에는 예수회(Jesuit)교단³⁹⁾과 이들이 운영하는 대학에 의해 가톨릭의 공세가 증대되었다. 이러한 가톨릭 공격적인 형세의 최전선은 1561년부터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토 안에 있던 4개의 예수회에 의해 운영되는 대학들이었다. 870명 모든 회원들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이러한 예수회 측 대학들은 1650년 까지 약 50개로 증가되었다⁴⁰⁾. 뿐만 아니라 아우크스부르크 조약의 관대하고 오래된 세대들이 점점 죽고 없어지자 1580년대부터 합스부르크 영토안의 가톨릭의 기질은 거칠고, 완고하고 형식에 구애받는 예수회 신부들에 의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되어갔다. 대체로 이 시기 가톨릭의 공격적인 지지자들은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이 광신적이었다. 유럽 중앙의 합스부르크 영토만이 그들에겐 유일한 피난처로

39) 선군성, 『St. Ignatius와 예수회의 成立』 (서울: 가톨릭教育研究, 1986), pp.178-179. 예수회는 우선 교회 성직자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지적, 도덕적 및 영성적인 탁월성을 고취시키고, 새로 활기를 찾은 교회조직에 대한 복종과 규율을 명하는 교리와 가톨릭적 생활태도를 강조함으로써 교회의 정신을 재확립하였다. 예수회 창설의 중심인물은 St. 이그나티우스 로올라(Ignatius Loyola(1491~1556))로 그는 중세 기사도적 정신과 가톨릭 신앙이 깊은 뿌리를 가진 가정에서 성장하였다. 스페인 왕국의 칼5세의 廷臣과 군인으로서 평범한 생활을 하였으나 전투에서 다리에 부상을 당한 후 병상에서 성인들의 전기를 읽고 크게 감동하여 자신도 그리스도에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을 결심하였다. 병원에서 퇴원한 로올라는 1534년 8월 15일 프랑스 몽마르뜨에서 6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난하고 순결한 생활을 하며 신이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신을 모시겠다고 誓願하였다. 1540년 교황 PaulⅢ는 이들을 예수회로 승인하였다. 이 명칭은 중세 십자군운동의 정신을 소생시킨 군인적인 전투정신에 투철한 교단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사랑으로 충만하라는 뜻이다.

40) Parker, *The Thirty Years' War*, p.7.

보였다.⁴¹⁾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경우와는 달리 헝가리와 트란실바니아(Transylvania)에는 가톨릭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교황청 통계에 의하면 1606년의 경우 헝가리에는 이너 오스트리아의 측면 크로아티아 남부 지방 안에 약 300명의 로마(Rome)성직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1553년 이후 단 한 명의 고위 성직자(수도원장)도 교황청을 방문하지 않았다.⁴²⁾ 이에 보츠키(Bocskay)와 가보(B.Gabor)가 1605년에 터키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처하려던 합스부르크가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당시 황제 루돌프는 동생 마티아스에게 진압작전을 위임하고 보헤미아, 시릴리아(Silesia) 및 루사티아(Lusatia)만을 통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들에서도 신교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제후들이 황제에게 종교적 특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루돌프가 이를 거절하자 1609년 5월 제후들은 30여명의 집행관들(Directors)을 선출하여 4,5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황제가 서명하도록 강요했고, 1609년 7월에 보헤미안인들이 “1575년 고백”을 포함하는 가톨릭 신앙을 선택할 지 아니면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선택할 지 합법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유명한 “황제칙서”를 쓰게 한다. 귀족들과 도시들은 심지어 지을 수 없는 왕실 소유지에조차 프로테스탄트 학교와 교회를 짓는다.⁴³⁾ 보헤미아인들은 이제 왕령지에서조차 신교교회나 공동묘지를 개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태발전에 따라 루돌프는 1611년에 그의 사촌인 레오폴드⁴⁴⁾에게 사주하여 약 7,000의 병력으로 보헤미아를 침략하도록 했는데 보헤미아인들은 마티아스를 그들 세력으로 유입하여 이를 격퇴하였다. 이리하여 루돌프는 폐위되었고 1611년 5월에 마티아스가 보헤미아 왕으로 등극하였다.⁴⁵⁾ 그리고 보헤미아 왕 마티아스는 1612년 1월에는 제국황제로 피선되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경직된 가톨릭 정책으

41) Parker, *op. cit.*, pp.7-8.

42) *ibid.*, p.8.

43) *ibid.*, p.11.

44) *Ibid.* brother of Ferdinand of Styria

45) *Ibid.*

로 일관하게 되어, 권좌를 장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프로테스탄트 제후들과도 충돌하게 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당시의 보헤미아에는 도시의 쇠퇴와 재판 농노제가 야기된다. 소지주 및 농촌 부르조아가 쇠퇴하고 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조차 가격혁명의 여파로 허덕이고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도 보헤미아인들은 합스부르크가에 대한 반항세력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1617~1618년 겨울에 페르디난트⁴⁶⁾는 절대적으로 보헤미아 및 헝가리 제후들에 의하여 왕으로 선출되었고⁴⁷⁾, 제국궁정은 빈(Wien)이 있는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프라하에서는 10명의 섭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그중 7명은 독실한 가톨릭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프로테스탄트교도들은 1609년 "황제칙서"에서 황제가 그들에게 교회를 지어도 된다고 허락했을 때 그들은 어느 곳이나 교회를 세워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가톨릭교회 소유이던 땅에 교회를 두 개 지었는데, 하나는 브라우нау(Braunau)에 있는 베네딕투스 수도원이 있던 자리에, 다른 하나는 프라하 대교구 소속 클로스터그라프(Klostergrab)에 세웠다. 하지만 황제는 이제 와서 황실의 소유 지역에만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뿐 가톨릭 소유 지역에 개신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브라우нау의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은 감옥에 갇혔고 클로스터그라프 교회는 파괴되었다. 빈의 대주교로부터 은밀한 명령을 받은 프라하 시장은 이 일을 애도하는 개신교도들의 회합을 금지했다. 그와 같은 조처에 분개한 개신교도들은 칼벡교

46) 페르디난트 2세(1619-1637) 30년 전쟁기간 동안 가톨릭 측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재임하였다. 그는 페르디난트 1세의 손자로서 Inner Austria(Styria, Carinthia, Carniola 공국들과 Graz 포함)이었던 그는 Jesuit교단에서 교육을 받은 가톨릭 신자로서 1618년 보헤미아 및 헝가리 왕으로 선출되었고, 1619년 황제가 죽자 황제로 선출되었다. 그는 30년 전쟁의 약 20년 가까이 기간을 재임하였다.

47) 양병우 외, 『대 세계의 역사7』 (서울: 삼성출판사, 1991), p.33. 페르디난트 2세가 계승자로 뽑힌 것은 합스부르크가의 집안사정이 작용하였다. 합스부르크가는 분할상속으로 많이 쇠퇴해있었기 때문에 신교도를 압박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 페르디난트가 지명된 것이다.

인 하인리히 마티아스 투른(Heinrich Matthias Thurn) 작과 루터파인 안드레아 폰 술리크의 지휘아래 12명의 저명인사들 1618년 5월 23일 라트신 성으로 쳐들어가 제후회의를 소집하여 황제에게 정책전환을 요구하였다⁴⁸⁾. 마티아스 황제가 이에 대해 거부하자 1618년 5월 23일 프라하(Praha) 궁전 창외 투척사건⁴⁹⁾이 야기 되었다. 역사가들은 보통 1618년 5월의 ‘프라하 투척 사건’을 30년 전쟁의 시발점으로 잡는다.⁵⁰⁾ 이 사건이 발생한 뒤 보헤미아의 프로테스탄트 신분의회가 타 지역의 프로테스탄트 교도들에게 지원을 요청했으니 그로써 30년 전쟁의 최초 충돌인 보헤미아 봉기가 시작된 것이다⁵¹⁾. 보헤미아의 신분의회는 페르디난트 대신 칼뱅주의자인 팔츠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5세(Friedrich V)를 보헤미아의 왕으로 선출하였고 프리드리히 5세는 보헤미아를 지원하기 위해 출정했다. 섭정위원회를 해체시킨 보헤미아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군대를 편성하였으나 방어를 유지할 수 있는 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초기에는 주변의 신교 군주들조차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다. 8월 13일 황제군이 침략하자 보헤미아군은 사보이(Savoy)의 만스펠드(Mansfeld)군의 지원을 받아 역으로 領內 가톨릭 도시인 부드바이스(Budweis)와 필젠(Pilsen)을 장악하려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유니온의 개입으로 팔츠백 프리

48) Parker, *The Thirty Years' War*, pp.44-45.

49) 송요태, “30年 戰爭의 原因”, p.199. 보헤미아의 불안정한 종교적 균형을 정리하기 위하여 1609년에 임명된 변호인들(Defensors)은 1618년 3월 5일 참사위원들의 반 신교정책을 의논하기 위하여 領內의 제후들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여기에는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에게 황제칙서에 의해 보호되고 있던 王領地의 양도문제가 특히 관련이 있었다. 1611년 이래 132개의 황실교구들이 프라하 대주교에게 이전되어 왔기 때문에 황제칙서상의 그러한 토지문제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리하여 프라하 의회는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긴급탄원서를 황제에게 보냈다. 황제 마티아스는 대표들을 쫓아 버리면서 거부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회는 사태추이를 보기 위하여 2개월 후에 재소집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5월 23일에 즉시 해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전통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 명령이 참사위원회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성난 대표자들이 궁정으로 진출하여 회의실로 들어가 2명의 가장 노골적인 가톨릭 참사위원과 그들의 비서들을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50) 폴브룩,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 p.91.

51) *ibid.*, p.92.

드리히도 적극 개입하게 된다. 황제 마티아스는 1619년 3월에 죽었고 1619년 8월 28일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보헤미아 왕 페르디난트 2세가 7선제후의 투표로 신성로마제국의 새로운 황제로 선출되자 전쟁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가톨릭 측에는 스페인과 교황이 원조하게 된다. 스페인은 지중해 해적문제를 제쳐두고 프랑드르군을 진출시켜 지원하였고 이에 리자도 의견이 통일 되어 적극 개입하였다. 1619년 여름에 보헤미아의 귀족들은 (Lower and Upper Austria 지역의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이 합류) 합스부르크 왕국 내의 모든 합스부르크에 적대적인 연맹을 구성했으며, 예수회를 프라하에서 완전히 추방했으며, 가톨릭 재산을 전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몰수했다. 페르디난트는 공식적으로 폐위되었고, 귀족들은 선출된 이 땅의 왕위를 잉글랜드의 왕 제임스 1세⁵²⁾의 딸, 엘리자베스와 결혼한 젊고 결혼한, 칼뱅주의 신앙을 가진 선제후 팔라틴 백작 프리드리히 (Friedrich 5세)에게 제의했다. 이 선택은 국제적 지원을 향한 희망으로부터 일어난 것이 분명했다. 1620년 초에 스페인은 황제와 리자에게 대규모 지원이 가능했고, 교황과 제노바 및 토스카니(Tuscany)도 재정적 지원을 계속하였다.⁵³⁾ 그러나 보헤미아 측에는 1619년 초부터 네덜란드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의회의 반대로 병력지원은 불가하였다.⁵⁴⁾ 트란실바니아는 중립을 선택했고 이 중립은 반란군

52) 이규하, “Cromwell 治下의 英國의 對外政策” 『전북사학』 (1997), p.287. James 1세는 유럽정책으로 평화정책을 내세워 가톨릭과 Protestant 사이에 중재자로 등장했으며 이와 같은 그의 구체적인 정책실현을 자신의 장녀를 칼뱅주의자인 신성로마 제국 Pfalz 선제후인 Friedrich의 결혼에서, 그리고 왕자를 英國 하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인 Spain 왕가의 Maria와 결혼시키는 데서 이룩하려고 했다.

53) Parker, *The Thirty Years' War*, p.59. 이 원조는 몇몇 이탈리아 군주들로부터도 받았다. 교황은 1618년 7월부터 빈에 매월 8,000 탈러(thalers)의 지원금을 보냈고 1620년 말까지 304,000 탈러가 급송되었으며 같은 기간에 Liga에도 204,000 탈러가 지원되었다. 제노바(Genoa) 역시 재정적 공헌을 했고 토스카나(Tuscany)는 부대를 파견했다. 사보이(Savoy)와 베니스(Venice)는 확실히 적이었으나 별것이 아니었으며 합스부르크가 시야에 경중이 될 만한 것은 네덜란드의 보헤미아 지원 약속 이었다

54) *ibid* 네덜란드의 의회는 1618년에 몇 차례에 걸쳐 지원을 요구하는 동맹군들에게 동의할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토의했지만 그때마다 부결되었다. 1년 내내 조심성이 유지

을 고립시키는 주요한 군사행동과 다름없었다.⁵⁵⁾ 프리드리히 5세의 장인 제임스 1세는 사위 프리드리히의 보헤미아모험에 중재자 역할만을 시도하였다. 더구나 위그노 반란에 고심중이던 프랑스의 루이 13세(Louis XIII)는 울름(Ulm)조약(1620.7.3)을 체결토록 하여 오히려 페르디난트를 도왔다. 이 조약으로 울름(Ulm)에서 대치 중이던 리자군과 안스바흐(Ansbach)변경백은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철수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유니온군은 네덜란드로부터 진군하는 스피놀라(Spinola)군에게 강요된 반면 리자군은 페르디난트 2세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쌍방 주력부대들은 바이센베르그(Weißenberg)에서 대치하였다. 단결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보헤미아군은 십자군의 정신으로 무장된 바이에른(Bayern)의 막시밀리안군에게 두시간만에 대패하였다. 바이센베르그 전투⁵⁶⁾보다 더 짧고 빈약하게 치러진

되었는데 이는 올덴바르더벨트(Johan von Oldenbarnevelt)에 의해 이끌리는 네덜란드의 제후들과 수상 모리스(Maurice of Nassau)에 의해 이끌리는 다른 주들의 제후들 간의 투쟁때문에 공화국이 무력해졌다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었다. 1619년 초에 올덴바르더벨트를 체포하고 그 지지자들을 분산시키고 제후들을 숙청시킨 수상은 매월 25,000 탈라의 보조금을 제공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보헤미아인들이 전투를 유지하고 네덜란드 공화국이 평화를 유지했던 단 3개월의 짧은 기간이었다. 실제로 보조금은 1620년 12월까지 지속되었지만 프리드리히 제후를 도와주거나 Union을 보호하기에 병력파견은 의회에 의하여 너무 늦었다고 거부되었다. 가뜰이나 의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군하고 있는 군대의 목적지는 팔츠가 아니라 프라하라고 믿게 한 스피놀라(Spinola)에 의해 속았다. 그들이 진실을 깨달았을 때는 영국이나 Union으로부터의 지원 결핍으로 어떤 효과적인 공세도 불가능하게 했다.

55) *ibid.*

56) 송요태, “보헤미아 전쟁(1618-1620)”, pp84-85. 보헤미아왕의 군대는 안할트(Anhalt), 트룬(Thurn), 그리고 만스펠드(Mansfeld)에 의해 지휘되는 3개군이 있었다. 그들은 여러 곳에서 급히 모집되었는데 체코인은 거의 없었고, 여러지역의 독일인, 오스트리아인, 헝가리인 심지어는 영국인들도 있었다. 따라서 이 군대는 결합력이 없었고 훈련은 아주 느슨했으며, 반항자들은 제대로 지휘되지 못했다. 가톨릭군대는 막시밀리안으로부터 지휘권을 받은 킬리(Tilly)가 지휘했다. 이 군대도 왈론(Walloon)인, 플레밍(Fleming)인, 이탈리아인 그리고 약간의 스페인인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었지만 훨씬 훌륭하게 훈련되어 있었다. 막시밀리안군은 약 25,000, 보헤미아왕의 군대는 약 20,000 정도의 규모였다. 1620년 11월 8일 여명에 킬리군이 도착하자마자 공격을 감행하였고 보헤미아 군대는 두 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프라하로 탈주하였다. 프리드리히 5세는 9일 새벽 관속들과 함께 모라비아로

전투도 그리 흔치않지만 또한 그렇게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전투도 거의 없을 것이다. 황제군의 승리의 결과는 잔인한 보복으로 달성된 보헤미아의 완전한 복종이었다. 그 결과가 보헤미아에 너무 가혹한 것이어서 체코역사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 결국 보헤미아 전쟁은 제국 황제 가문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정치, 경제, 종교적 통치 정책에 대한 보헤미아인들의 마지막이며 실패한 저항이었던 것이다. 제후들은 배상의무를 이행하고 황제에 절대 복종해야 했다. 1621년 2월에는 수많은 사형선고를 하게 될 최고 법정이 설립되었다. 6월 21일 12명의 집정관을 포함 27명의 반동지도자들이 도시 광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더구나 법정은 죄인들과 도망자들의 토지들을 루돌프 2세의 법률이 그들의 법적 유산 소유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왕실전용으로 완전히 몰수토록 하였다. 그러나 황제의 재정에도 커다란 이익을 주지는 못했다.⁵⁷⁾ 또한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실패한 팔츠伯 프리드리히 5세는 30년 전쟁의 전 기간 동안 영토 상실은 물론 1623년 2월 선제후 작위까지 잃게 되고 선제후 자리는 바이에른 공 막시밀리안에게 넘어간다. 대체로 이 당시 유럽의 정세는 보헤미아 전쟁에서 패배한 팔츠伯 프리드리히 5세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테스탄트군과 가톨릭 동맹군,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대결양상이었다. 그러나 군사, 정치적 측면에서 합스부르크 왕가에 적대할 세력이 제국 내에 없었고 이들을 지원할 개신교 국가들 예컨대 영국, 덴마크, 스웨덴 같은 국가도 자국의 문제로 적극 지원이나 전쟁에 개입할 수 없었다.

2. 덴마크 개입 시기(1625~1629)

합스부르크와 가톨릭 진영의 군사적 승리는 반합스부르크 세력과 개신교

도주하였다가 선제후가 칼뱅파였던 브란텐부르크로 피신하였다.

57) *ibid.*, p86. 페르디난트 2세가 그에게 봉사한 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었기 때문이다.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마르티니쯔(Martinitz), 슬라바타(Slawata), 버퀴이, 연대장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토지를 수여하였던 것이다.

세력에도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개신교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에 개입하고 나선 사람이 덴마크의 왕 크리스티안(Christian IV) 4세이다. 크리스티안 4세는 스웨덴의 구스타프 아돌프(Gustav Adolf) 왕과 함께 합스부르크가에 대항하는 북유럽의 신교국왕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영국과의 원조를 약속받은 그는 독일의 신교도 보호라는 간판아래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1625년 저지 작센지방의 여러 영주들과 도시국가들에 의해 지도자로 추대되어⁵⁸⁾ 북상하는 가톨릭 군에 대항하게 되었다. 크리스티안 4세는 합스부르크가와 가톨릭 세력을 전면적으로 방해하려고 애썼지만 독일 내에서 동맹자를 찾을 수 없었다. 작센과 브란덴부르크 선제후들은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개신교 운동에 합류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같은 시기에 스웨덴은 폴란드와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고, 영국은 위그노 폭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병하는 등 1628년까지 스웨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크리스티안 4세를 지원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었다. 이 때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인 페르디난트 2세는 가톨릭 제후 연맹과 바이에른 막시밀리안 1세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용병대장 발렌슈타인(Wallenstein)⁵⁹⁾으로 하여금 크리스티안 4세와 싸우도록 했다.

발렌슈타인은 1626년 8월 27일 툴리 군대와 연합하여 잘츠기터(Salzgitter) 근처 루터 암 바렌베르크에서 크리스티안 4세가 이끄는 덴마크 군대와 북부 독일 동맹군을 격파했다. 황제의 제국군대는 홀슈타인과 메클렌부르크, 그리고 포메라니아를 점령함으로써 슈트랄준트(Starlsund) 항구를 제외한 발트해 연안 전체를 수중에 넣었다. 슈트랄준트 항구도 포위된 상태였으므로 점령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1629년 5월 22일에 덴마크 왕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

58) 양병우 외, 『대 세계의 역사7』, p.34.

59) 키친, 『케임브리지 독일사』, p.131. 황제의 군대가 보헤미아에서 대승을 거두자 많은 수의 용병들과 전쟁 중에 한몫을 잡으려는 이들이 황제 진영으로 몰려들었다. 황제는 자금과 토지, 전리품도 두둑히 챙겼다. 몰려든 용병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은 알브레히트 폰 발렌슈타인(Albrecht von Wallenstein)이었다. 그는 부유한 미망인과 결혼해 큰 재산을 얻은 사람으로 자신감도 대단했다.

고 뤼베크 평화조약에 서명했다. 덴마크가 독일의 전쟁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빼앗겼던 영토를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스웨덴이 전쟁에 개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덴마크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게 대우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승리로 자신만만해진 황제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계획을 세웠다. 황제는 발렌슈타인을 ‘발트해와 대양의 장군(Generrnal of the Oceanic and Baltic Seas)’으로 임명하고 북해와 발트 해를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하고자 했다.⁶⁰⁾ 개신교도이자 반스페인 정서를 가지고 있던 한자도시민들은 그 계획에 충격을 받고 서둘러 황제에게 대항하기 위해 든든한 동맹군을 물색하였고 다행히도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갈수록 강력해진 황제는 이제 종교개혁을 되돌림으로써 독일 문제를 재편하기로 작정했다⁶¹⁾. 1629년 3월 황제 페르디난트 2세는 반환칙령(Restitutionsedikt)을 선포함으로써 또 한 번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다.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했던 일련의 대주교령·주교령과 도시들을 가톨릭으로 복귀시키고, 1552년 이후 세속화되었던 모든 교회 재산과 수입을 복귀시키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 조치는 영방적 권력패턴을 급격하게 변경시키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초법적 조치였다. 승리를 거둔 황제 페르디난트 2세는 가톨릭을 통일의 기둥으로 삼는 합스부르크 세계제국을 만들어 제국의 재편성을 시도하려 했던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전선에서 분노와 적대감이 분출되었다. 뒤늦게 전쟁에 뛰어들어 전리품에 손을 대었다가 황제보다 얻은 것이 적었던 가톨릭 제후들도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황제로서 페르디난트의 권력이 강화되자, 가톨릭 제후들, 그리고 심지어 황제의 가장 중요한 동맹자였던 바이에른의 막시밀리안 공작조차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합스부르크와 독립적으로 가톨릭 동맹을 이끌던 막시밀리안은 이제, 황제 군대의 규모를 줄이고 발렌슈타인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페르디난트는 1630년에 실제로 발렌슈타인을 파면⁶²⁾했지만, 원상복구 칙령의 수정은 거부했다. 그리하여 새

60) 키친, *op. cit.*, p.132.

61) *ibid.*, p.95.

로운 진용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맞선다기보다 영방제후들이 지나치게 강력한 황제에 대항하는 구도가 성립되기 시작했던 것이다.⁶³⁾

3. 스웨덴 개입 시기(1630~1635)

1630년부터 제국 내부의 갈등이 국제적인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었다. 독일 전체를 장악하려던 황제의 시도는 스웨덴의 국왕 구스타프 아돌프(Gustav Adolf)⁶⁴⁾의 개입으로 좌절되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발트 해 진출을 가장 두려워하던 구스타프 아돌프는 프랑스의 재상 리슐리외(Richelieu)의 원조를 받아 그의 군대를 포메른(Pommern)에 상륙시켰다. 이 당시는 프랑스 추기경 리슐리외가 서부 유럽에 대한 패권을 놓고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와 격렬한

62) 키친, *op. cit.*, pp.132-133. 1629년 7월에는 황제가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5세의 동맹군이었던 메클렌부르크 슈베린 공작과 메클렌부르크 귀스트로 공작소유의 토지를 점령해 그가 총애하던 발렌슈타인 장군에게 하사했다. 그 공작령은 공작집안에서 거의 800년 가까이 소유해 오던 땅이었다. 제국 기사들은 일개 용병이자 무기상인에 불과한 사람을 자신들과 동등한 지위로 끌어올려 자신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황제의 처사에 격분했다. 더군다나 공작령까지 하사했다는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반환칙령을 선포하고 발렌슈타인의 지위를 격상시킨 황제의 처사는 신분 의회의 권리와 특권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어 가톨릭과 개신교 진영 모두에서 날카로운 반응을 나타냈다. 선제후인 마인츠의 대주교는 발렌슈타인 문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성토했다. 근래에 선제후로 승격된 바바리아의 막시밀리안 공작도 레겐스부르크에서 열린 선제후 회의에서 황제의 아들이 왕으로 선출되는 것을 반대했다. 1631년 막시밀리안은 프랑스와 방어조약인 퐁텐블로 조약을 체결했다. 다시 한번 제후들 사이의 동맹이 종교를 바탕으로 하는 동맹관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던 것이다. 황제는 승복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반환 칙령은 보류되었으며 황제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려는 계획도 중단되었고, 발렌슈타인 역시 해고되었다. 발렌슈타인은 자신의 보헤미아 영지에 머무르면서 황제와 제후들에게 복수할 방법을 모색했다.

63) 폴브룩,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 pp.94-95.

64) *ibid.*, p.95. 그는 1594~1632년의 치세동안 폴란드·덴마크·러시아·독일 등에 연이어 승리했다. ‘북방의 사자’로 불리던 그는 통상 ‘군대혁명’의 주된 내용으로 해석되는, 총병과 창병의 결합을 완성시킨 인물이다.

분쟁을 벌이던 시기였고, 리슐리외는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항하는 제후라면 프로테스탄트는 가톨릭이든 가리지 않고 지원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스웨덴의 30년 전쟁의 참여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30년 전쟁의 한 전기가 되었다. 구스타프 아돌프가 전쟁에 개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니더작센과 포메른 지방이 황제군의 수중에 들어간 것 때문에 발트 해 연안지역에서 스웨덴이 차지하고 있던 세력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또 독일에서 가톨릭 진영이 일방적인 승리를 차지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스웨덴의 개신교도 존립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종교적 고려도 하고 있었다. 구스타프 아돌프는 브란덴부르크와 작센의 지원을 받아 1631년 9월 브라이텐펠트(Breitenfeld) 전투에서 티리 휘하의 가톨릭 군을 격파하고 독일 북부지방으로부터 가톨릭 군을 축출한다. 브라이텐펠트 전투는 30년 전쟁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전투로써 1618년에서 1629년까지 합스부르크가와 가톨릭 측이 얻은 것들의 대부분이 없어졌다. 구스타프 아돌프의 군대는 라인강에서 다뉴브강에 이르는 지역을 통과하여 마인쯔를 공략하고 바이에른에서 비인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스웨덴군의 진격이 성공적이면 성공적일 수록, ‘해방된’ 독일 제후들에게는 프로테스탄트의 구스타프 아돌프가 가톨릭의 황제 페르디난트만큼이나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는 점이었다.⁶⁵⁾ 독일이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스웨덴 제국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증대되었던 것이다. 발동에 불이 떨어진 페르디난트는 그 전에 면직시켰던 발렌슈타인을 불러들였다. 발렌슈타인은 예의 주 무기인 재력을 이용하여 자비로 4만 명의 군대를 모집했다. 이리하여 그 이듬해 30년 전쟁의 두 영웅인 구스타프 아돌프와 발렌슈타인이 드디어 맞대결을 벌리게 되었다.⁶⁶⁾ 1632년 11월 16일 발렌슈타인은 아돌프와 뤼첸(Lützen) 전투에서 스웨덴군에 패배하게 되지만 구스타프 아돌프가 전사하게 만든다. 국왕이 전사한 스웨덴은 발트 해를 향해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한편으로 프로테스탄트 제후의 관심은 싸움보다 오히

65) 폴브룩, *op. cit.*, p.97.

66) 남경태, 『인간의 역사를 바꾼 전쟁 이야기』, p.134.

려 화평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이리하여 구스타프 아돌프의 전과도 헛되이 되고 만 것이었다. 그 동안 발렌슈타인은 황제 진영의 복잡한 세력 관계를 이용하여 독자적인 야심을 추구하고 있었다. 더욱이 그는 그 야심을 실현시킬 만한 군사력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빈의 궁정은 그를 제거하기로 작정했고, 음모·변절·도망 끝에, 1634년 발렌슈타인은 암살당했다.⁶⁷⁾ 1634년 황제의 군대는 황제의 아들이며 헝가리 왕인 페르디난트 3세에 의해 재편 지휘되었고 1634년 9월 6일 스웨덴 군은 너르틀링겐(Nördlingen)에서 패배하게 된다. 너르틀링겐 전투는 스웨덴군에게는 재앙이었고, 합스부르크 왕가에게는 위대한 승리였다.⁶⁸⁾ 그러나 스웨덴은 30년 전쟁을 통하여 유럽의 강력한 국가로 등장하였다. 전쟁을 종결시킨 베스트팔렌조약의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30년 전쟁이 10년이나 계속되고 있던 1628년까지만 해도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에서 완전한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쟁국가인 덴마크에 대하여 발틱해의 제해권을 추구하고면서 폴란드와의 왕조전쟁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등 동방 및 서방에 대한 전통적인 정책에 몰입하고 있었다. 1630년 이후에 스웨덴은 30년 전쟁에 직접 참여하여 그것도 주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열강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발틱해의 대안에 영토를 획득하게 됨으로써 이후에는 발틱해의 제해권은 물론 자원결핍에서 벗어나 발전적인 국가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웨덴을 열강으로 도약시킨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구스타프 아돌프의 군제개혁⁶⁹⁾이었는데 이러한 전술로 승리한 최초이며 대표적인 승전

67) 폴브룩,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 p.97.

68) *ibid.*, pp.97-98.

69) 송요태, “30년 戰爭과 Gustav Adolf”, p.76. 그는 먼저 병사들의 휴대장비를 경량화 함으로써 군대의 기동력을 증진하였다. 오랜 동안 소총수를 방해했던 목제 조준대(rest)를 보다 가벼운 철제 조준대(spike)로 대체하였다. 둘째로 전투기술을 개선하였는데 그는 대형에 보다 신속성을 부여하여 중심 6열(실은 3열 단위임)로 편성하여 앞의 3열이 10보 前進한 후 정지하여 一齊射擊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투 단위부대 편제를 개선하였고 포병을 개혁하여 화포의 發射速度를 보병의 소총 발사속도보다 높게 하였다. 이러한 砲兵의 改善으로 스웨덴군 내에 포병의 비율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 바로 1631년의 브라이튼펠트 전투이었다. 너르틀링겐 전투 후 1635년 5월 30일 프라하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평화조약은 제후들의 합법적인 권한을 보장해 주었으며 그들의 영지도 반환되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5세는 그 혜택에서 제외되었다. 반환칙령은 공식적으로 철회되었다. 제국은 마침내 평화와 질서를 지향하는 연합체가 되었다. 그러나 평화조약은 칼뱅파를 독자적인 종파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명백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프라하 평화조약은 황제와 제후들 사이의 진정한 타협의 결과였으며, 무의미한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제후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 준 것이었다. 프라하 조약 속에는 외국의 침략에 대하여 황제가 방위하여 주는 것이 있었다. 외국이라 하면 스웨덴이 첫 번째이며, 또 하나 30년 전쟁의 발발 이래 끊임없이 신교 측에 원조를 보낸 흑막적인 존재인 프랑스를 겨냥한 것이다. 이러한 평화가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한 것은 독일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1624년부터 1642년 까지 프랑스의 수상이었던 리슐리외 추기경 때문이었다.⁷⁰⁾

4. 프랑스 개입 시기(1635~1648)

프랑스는 수세기를 통해 오스트리아 가문과 불구대천의 원수였다. 프랑스는 합스부르크가의 스페인파와 오스트리아로부터 압력을 받는다고 보고 끊임 없이 합스부르크 왕가를 견제하고 또 반목하게 된다. 그것은 합스부르크가의 방대한 영토에 둘러싸여 있는 프랑스가 자기방어의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대립배경이라 할 수 있다. 평화조약이 체결되기 며칠 전 1635년 5월 19일 프랑스는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했다. 스웨덴, 네덜란드, 사부아, 파르마, 그리고 합스부르크에 반대하는 독일국가들은 프랑스를 지지했다. 대부분의 독일국가들은 황제진영에 남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했다. 당시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이지만 합스부

70) 키친, 『케임브리지 독일사』, p.135.

르크의 세력을 막기 위해 프로테스탄트 측을 원조한 것이다. 그것은 종교적인 전쟁이 정치적인 색깔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프랑스의 발루아·부르봉왕조 대 신성로마제국인 합스부르크가와의 숙명적인 왕조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평화를 채 실감하기도 전에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제국의 힘은 날로 쇠약해졌다. 황제와 리슐리외 추기경을 비롯해 스웨덴의 옥센세르나(Oxenstierna), 그리고 '스페인의 리슐리외'라고 불리는 올리바레스(Olivares) 등 전쟁 당사자들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으나, 자국의 이익을 최대로 반영해 주는 평화협상을 고수했다. 17세기 말에는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만이 강대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강대국을 간주되던 때는 이미 지났으며 폴란드도 옛 영화를 잃어버린 채 급격하게 시들어 가고 있었고 독일은 권력의 공백상태가 계속되었다.

프라하 평화조약은 30년 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조약으로 전쟁의 종교적 성격이 약해졌다. 프로테스탄트들은 더 이상 가톨릭들을 배타적으로 적대시하지 않았고 합스부르크의 제국정부 역시 이제부터는 극단적인 가톨릭 정책을 쓰지 않았다. 독일 내 프로테스탄트들과 평화를 체결한 것은 황제가 스페인을 도와 프랑스에 대적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전쟁은 프랑스·스웨덴 대 스페인·황제 사이로 바뀌었다. 전쟁은 처음의 종교적, 민족적, 법적문제는 제쳐두고 이제 합스부르크와 부르봉 왕조의 싸움이 되었다. 프랑스가 참여한 1635년에서 1648년까지의 마지막 전쟁의 13년간은 가장 파괴적 국면이었다. 처음엔 합스부르크가에 유리하였으나 프랑스와 스웨덴이 동맹을 맺은 후 전황은 합스부르크가 일방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전황이 혼미한 가운데 1637년 3월 페르디난트 2세가 서거하고 그 아들 페르디난트 3세가 황제위에 올랐다. 1642년 12월에는 프랑스의 재상 르슐리외가 먼저 사망하였고, 1643년 1월에는 스페인의 올리바레스도 실각하였다. 이때쯤 전쟁에서 프랑스는 계속 승리를 거두었다.

30년 전쟁에 최종적인 종결을 가지고 온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이다. 베스트팔렌 평화회의는 당시까지는 유럽 역사상 전례

없는 국제회의였다. 1648년 초 보헤미아가 스웨덴 군에게 점령당하고 프랑스 군이 합스부르크 군을 크게 압도하자 회의는 급진전하게 되어 1648년 10월 24일 뉘스터와 오스나브르크에서 동시에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두 조약으로 마련된 수많은 규정들을 통합한 것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제국의 공법과 기준점이 되었고 그 질서는 1806년 신성로마 제국이 종언을 고할 때까지 제국 헌정의 기초가 되었다. 30년 전쟁으로 합스부르크 왕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더 이상 유럽의 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가는 더 이상 합스부르크 왕가가 아니라 프랑스 부르봉(Burbon) 왕가였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세속화, 즉 정치와 종교의 분리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였다. 종교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항상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전쟁의 와중에 역력히 나타났다. 영방 국가의 신분의회와 제후들은 종파적인 동맹을 엄격하게 고수하기보다 야심적인 황제에게 저항하는 데 몰두했던 것이다. 그때부터 유럽의 갈등에는 잠재적인 동맹국이나 적국의 종파적 경향보다는 세력균형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떠오르게 된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도 1648년은 종교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은 해였다. 국가가 중앙집권화 되고 관료화됨에 따라, 과거에 종교-문화적인 자아 정체성이 갖던 기능을 이제는 국가의 통치 체제가 수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⁷¹⁾

V. 30년 전쟁의 종결

30년 전쟁은 전쟁이전과 그 이후의 시대상황이 크게 변화되어 유럽사에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독일 내부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변화는 물론 유럽 전체에 있어 약 1세기 반이란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되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⁷²⁾ 따라서 30년 전쟁이 신성로마제

71) 폴브룩,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 p.102.

72) 송요태, “30年 戰爭의 原因”, p.179.

국과 유럽 전체에 미친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30년 전쟁의 최종적인 종결을 가져온 베스트팔렌 조약과 함께 30년 전쟁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신성로마제국은 물론 유럽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종교적, 정치적, 사회·경제적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베스트팔렌 조약

베스트팔렌 조약은 제국 내부의 두 가지 갈등을 해결한 타협이었다. 하나는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의 갖가지 갈등이었고, 다른 하나는 야심적인 황제와 권력을 지키려던 제후들 사이의 갈등이었다. 이 조약은 유럽국가들 사이에 세력균형을 수립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 문제는 거의 해결을 보았지만, 프랑스와 스페인의 전쟁은 지속되었다. 더욱이 스웨덴과 프랑스는 제국의 헌정질서에 대한 보증인 자격을 얻었다. 이것은 그들이 제국에 간섭할 수 있는 구실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트팔렌 조약은 제국의 공법과 정치의 기준점이 되었다.

영토조정에서는 승전국인 프랑스와 스웨덴이 가장 이득을 보았다.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알자스와 로렌의 권리가 프랑스에 할양되는데 이는 후에 분쟁의 불씨로 남게 된다. 알자스는 모호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제국과의 연대를 유지했다. 그것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마자랭(Mazarin)⁷³⁾조차 헛갈릴 정도였고, 이는 장차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발생할 분규의 씨앗이 된다. 독립공국 로렌의 운명은 그 지위가 결정되지 않아 더 불안정했다. 로렌을 차지하려는 공방전 역시 여러 해에 걸쳐 벌어지게 된다.

스웨덴은 북부 독일 지역에 상당한 영토를 확보했고, 스웨덴이 발트해 지방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격상되었다. 스웨덴이 확보한 영토 속에는 서부 포메른(동부 지역은 Brandenburg에 귀속되었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스

73) 송요태, *op. cit.*, p.99. 리슈리외의 후임자로 프롱드난을 겪으면서도 스페인과의 전쟁을 지속하고 30년 전쟁에 개입했으며, 그 성과로 스트라스부르를 제외한 알자스를 얻었다.

웨덴이 러시아·폴란드와 지속적인 분쟁을 벌이는 원인이 된다. 북부 독일의 스웨덴 영토는 여전히 신성로마제국의 봉토로 남아 있었지만, 17세기 말까지 스웨덴의 힘은 약화되어 갔고, 따라서 독일 내에 확보한 근거지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네덜란드도 스페인 합스부르크가로부터 1648년 1월에 법적 독립을 승인받고 스위스도 신성로마제국에서 독립하게 되어 예전의 좀 모호했던 지위를 분명히 했다.

브란덴부르크, 작센, 메클렌베르크도 베스트팔렌 조약 덕분에 영토를 확대할 수 있었다. 특히 브란덴부르크는 북부 독일에 ‘세 번째 강국’을 만들어 스웨덴과 오스트리아를 견제하려던 프랑스의 전략 덕분에 크게 강화되었다. 베스트팔렌조약으로 생겨난 종교적 경계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인구구성에 격변을 일으키기까지 본질적으로 변치 않게 된다.⁷⁴⁾

성직령의 원상회복은 몇몇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0년 전쟁이 발발한 1618년을 기준으로 해 이루어졌다.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유럽 국가들은 복잡한 동맹관계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했다. 그와 같은 동맹관계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상비군의 규모도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고 무기도 더 다양해졌다.⁷⁵⁾

2. 30년 전쟁의 영향

1) 종교적인 영향

30년 전쟁은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했다. 정치적인 야망과 종교적인 열정이 결합되어 나라 전체를

74) 송요태, *op. cit.*, p.102.

75) *ibid.*, pp.139-140.

극심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난 정치가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종교 개혁을 인정하면서 독일 전역의 가톨릭과 루터파, 칼뱅파 신자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는 세속적인 것이, 종교는 완전히 개인적인 것이 되었다.⁷⁶⁾ 신앙속지주의⁷⁷⁾는 개정되어 제후가 종교를 바뀌어도 백성들은 자신의 종교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의회에서 종교문제를 논의할 때도 신교와 구교대표들이 함께 참가하고 그 수도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주요한 제국 기관에서는 종파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게 되었다. 과거 나라 전체를 극심한 고통의 도가니로 몰고 갔던 종교적인 이기심과 다른 종파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려는 비관용이 완전히 사라지는 않았으나 독일 국민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⁷⁸⁾ 그러나 합스부르크 왕가의 세습 영지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랐다. 바이센베르그 전투 이후 보헤미아에 새로이 자리 잡았던 가톨릭 귀족들이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성직임명 유보’조항은 프로테스탄트 주교구에까지 확대되었다. 종교의 권리는 1624년 ‘정상적인’해를 기준으로 인정되었다. 이제 칼뱅주의도 포함되었지만 기타의 종파들은 인정받지 못했다. 종교적 소수 집단에게 제한적으로나마 종교적 관용을 베푸는 나라는 서부와 독일에 많았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는 여전히 국내에 종교적 동질화를 강요했다.⁷⁹⁾ 가톨릭을 강요하고 중앙의 영향력을 강화한 결과,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영지는 보다 통일되고 공고화되었다.⁸⁰⁾ 프랑스는 점진적으로 통일국가 가톨릭을 지향함으로써 앙리 4세가

76) 키친, 『케임브리지 독일사』, pp.137-138.

77)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의 내용으로 어떤 영주의 영역에 거주하는 모든 거민은 그 영주의 종교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

78) 키친, *op. cit.*, p.144.

79) 폴브록,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 p.101.

80) *ibid.*, p.102.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생겨난 종교적 경계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인구 구성에 격변을 일으키기까지 본질적으로 변치 않게 된다.

낭트칙령에서 이룩한 종교의 자유를 1685년 루이 14세가 파기한 반면에, 1689년 영국의회는 신교 자유령을 통과시켰다.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생겨난 종교적 경계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인구 구성에 격변을 일으키기까지 본질적으로 변치 않게 된다.

2) 정치적 영향

30년 전쟁으로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영방제후들의 권력과 권리는 크게 신장되었다. 그들은 황제와 독립적으로 동맹관계를 맺고 대외정책을 추구할 권리를 얻었던 것이다. 엄밀히 말해 제후들은 완전한 주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영방 내에서는 최고위 권력인 영방고권(領邦高權, Landeshoheit)을 확보했고, 황제의 간섭 없이 제국의회에서 특정문제(국방·사법·조세 등)를 결정할 집단적인 권리도 얻었다. 비록 그들이 아직 형식적으로 완전한 주권을 소유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핵심적인 정치적 주체는 이제 더 이상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아니라 영방군주들이었다. 제국은 이제 적극적인 정치적 기구도 아니었고,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할 잠재적 기초도 되지 못했다.⁸¹⁾ 주권은 단지 지방수준인 300여개의 제후 국가들과 제국도시들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다. 이들 평균인구가 4만정도 되는 적은 국가들은 17세기 후기에는 점차 정치적 절대주의로 지향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보편적인 분권화 현상과 맞물려서, 영방차원에서는 비교적 상당한 정도의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졌다. 영방의 군주들은 다른 신분을 희생시키면서 권력을 집중시켰다. 그들은 신분의회를 무시한 채 통치하려 했던 것이다. 이른바 '절대주의 시대'에 성공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군주들은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상비군을 양성하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을 징수하고, 영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관료제를 육성했던 것이다. 특히 몇몇 중간 규모의 영방들이 힘을

81) 폴브룩, *op. cit.*, p.111.

얻게 되었다.⁸²⁾ 바이에른은 황제 선출권을 확보함으로써 황제 선출에서 가톨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으며 高地 팔츠를 얻음으로써 17세기 후반의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브란덴부르크와 작센 역시 더욱 중요한 영방국가로 부상했다. 30년 전쟁 이후의 독일의 주도권 싸움은 합스부르크의 오스트리아와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⁸³⁾으로 압축된다. 프로이센은 17세기 중엽 이후 프리드리히 빌헬름의 통치하에 북부독일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발전하였으며 18세기에는 유럽의 주요강대국이 되었다. 17세기의 이러한 시대환경이 유럽의 신흥변방국가인 프로이센의 급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⁸⁴⁾

3) 사회 · 경제적 영향

30년 전쟁이 끝난 1648년의 독일은 비참했다. 전쟁 중에 벌어진 약탈과 파괴와 살육은 하나의 역사적 신화를 만들어냈다. 30년 전쟁은 범 유럽적인 살육으로 변형되어 군대를 거느린 사람은 누구나 노획을 일삼았으며⁸⁵⁾ 용병들은 특히 독일 여러 지역에서 닥치는 대로 살인과 약탈, 강간을 자행했다. 전쟁 기간 동안 경작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당부분의 경작

82) 폴브룩, *op. cit.*, p.112.

83) 김상태, “브란덴부르크 · 프로이센과 Jülich · Kleve상속분쟁문제”, p.179. 브란덴부르크는 제국의 동북방에 위치한 변경 백작령으로 Sandbox of Holy Rome Empire 란 별칭을 들을 만큼 농업에 부적합한 땅이었는데 南獨의 귀족가문인 호헨졸렌가(Hohenzollen)가의 프리드리히 1세(Friedrich I)가 브란덴부르크의 선제후가 된 후 도시의 협조를 얻어 탐욕적인 귀족의 세력을 꺾고 점차로 영토를 넓혀갔다. 선제후가 직접 다스리는 마르크 · 브란덴부르크가 여러 영역을 흡수하여 17세기 초까지만 하여도 브란덴부르크는 北獨에서는 제 1의 영방국가가 되었다. 실제로 17세기 국가의 관료화와 군주의 절대주의적 권력의 강화가 동시에 진행된 가장 두드러진 나라이자 동시에 독일사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경우가 Brandenburg-Preussen이었다.

84) 조만제, “프로이센 一研究” 『경성대학교 논문집, 1990』, p.209.

85) 이종완, 『유럽의 합스부르크 왕가』, p.153.

지가 황무지로 변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염병과 기아까지 겹쳐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었다.⁸⁶⁾ 전쟁이 농업생산에 끼친 영향도 컸다. 농민들은 안전 때문에 주기적으로 도시로 도망쳤고 질병 등의 원인 때문에 농촌 인구는 45% 내지 50% 감소했다. 그에 비해 도시 인구는 25% 내지 30%만 감소했다. 건물이 파괴되고, 가축이 살상되었으며, 급료를 받지 못한 병사들에게 제공할 보상물로 징발되고, 공격해 오는 적군이 먹지 못하도록 사용한 ‘초토화’ 작전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허약한 생존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그로 인해 독일은 유럽 경제 발전의 중심에서 얼마간 밀려나게 되었다.⁸⁷⁾ 그런 반면에 베스트팔렌, 남부 작센, 라인강 하류지역, 쉘레스비히 홀슈타인, 북해연안, 합스부르크 영지 등은 전쟁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다. 17세기 초 독일에서 가장 강력하고 근대적인 국가였던 바이에른은 30년 전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인구는 반으로 줄었으며 900여 개 도시나 촌락이 황폐화된다.⁸⁸⁾ 합스부르크가의 영토는 보헤미아를 제외하고는 전쟁에서 그다지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황제가 외국과의 전쟁이나 헌법 분쟁 등에 휘말리게 되면서 경제회복에 집중하지 못했다. 작센에서처럼 귀족들은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영지를 넓혀나갔으나 회복은 상당히 더디 농민들의 농장이 1760년에도 1616년 보다 적었다. 독일 제후들과 정치인들도 이제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안정된 경제력과 개방적인 사회제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⁸⁹⁾

86) 폴브룩,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 pp.103-104. 감소의 정도를 놓고 아직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조프리 파커(Geoffrey Parker)는 신성로마제국의 인구가 1618년의 2천만에서 1648년의 1천600백만 내지 1천 7백만으로 약 20%감소했다고 계산한 반면 루돌프 피어하우스(Rudolf Vierhaus)는 같은 시기 동안 1천 5백만 내지 1천 6백만으로 1천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그것은 평균치일 뿐이고 가장 심각한 곳에서는 인구가 3분의 1로 감소했다.

87) *ibid.*, p.110.

88) 키친, 『케임브리지 독일사』, pp.142-143.

89) *ibid.*, p.143.

VI. 결론

17세기 유럽은 16세기 후엽부터 유럽에 도래한 경제적 위기로 경제적 쇠퇴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17세기 초엽의 경제적 쇠퇴는 전쟁 전후를 막론하고 유럽 각 국에 경제문제를 야기 시켰다. 경제적 갈등은 더불어 정치적 갈등을 불러 일으켰으며 종교적 갈등과도 무관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갈등구조는 유럽 전체에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당시 유럽최대의 왕가였던 합스부르크 왕가가 위임받은 신성로마제국 황제는 제권보다는 오스트리아 공국의 왕권이 더욱 우세한 이름만의 황제여서 가능한 한 제권과 영토를 확장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독일 내부는 물론 유럽 각 국과 종교적 갈등과 더불어 정치적 갈등이 야기된다. 이러한 갈등은 부분적으로는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회의가 미결로 남겨 놓았던 문제에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종교회의 이후의 갈등 양상에 있었다. 독일 내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의 갈등은 독일의 정치적인 분열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동맹 관계와 정치적, 영토팽창 욕구들과 얽혀 제국의 종교, 정치적 갈등은 국제적 차원의 갈등으로 비화되어 복잡한 30년 전쟁의 중요한 원인으로 진행된다. 그 실 예는 도나우비르트 사건과 클리브-울리히 상속분쟁문제이며 이로 인하여 제국은 유니온과 리자의 양대 세력으로 노골적으로 분열되었다. 클리브-울리히의 위기는 30년 전쟁을 직접적으로 야기 시키지는 않았으나 전 유럽의 세력판도를 합스부르크파와 반 합스부르크파로 양분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30년 전쟁은 16세기를 통하여 만들어진 이러한 내면적인 갈등들이 표출되면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제반 문제들을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기 위한 필연적인 전쟁이었다.

프라하공정의 창외투척 사건을 도화선으로 발생한 30년 전쟁은 그 진행과정을 황제 측에 대항하는 국가로 나누어 1기에서 4기까지로 나누고 있다.

제1기(1618~1623)는 보헤미아의 봉기로 시작되어,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로부터 보헤미아 왕으로 추대된 칼뱅과 프리드리히 5세가 주변 개신교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족과 전력부족으로 바이쉴베르그 전투에서 황제측 군대에 대패하고 “한 겨울의 보헤미아 왕”이 되어 망명길에 오르게 되고, 반란을 일으켰던 보헤미아의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은 영지를 몰수당했고 목숨을 잃기도 했다.

제2기(1625-1629) 독일의 개신교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에 개입하고 나선 덴마크의 왕 크리스티안 4세의 참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나 용병대장 발렌슈타인이 황제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덴마크 군대와 북부독일 동맹군을 격파했다. 황제는 스웨덴이 전쟁에 개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덴마크가 더 이상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빼앗은 영토를 모두 덴마크에 돌려준다. 그러나 계속되는 승리로 자신만만해진 황제는 1629년 3월 반환칙령을 선포하여 제국의 재편성을 시도하게 된다.

제3기(1630~1635)는 제국 내부의 갈등이 국제적인 갈등 양상으로 비화된 시기로 합스부르크 왕가의 발트해 진출에 위협을 느낀 스웨덴의 구스타프 아돌프가 프랑스의 재상 리슐리외의 원조를 받아 참전하여 시작된다. 스웨덴의 개입은 프로테스탄트의 운명을 결정한 전환점이었고, 아돌프는 1631년 9월 30년 전쟁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브라이텐펠트 전투에서 황제군을 격파하여 독일 북부지방으로부터 가톨릭 군을 축출하고 그 동안 개신교 측이 잃었던 땅들을 회복한다. 그러나 뤼첸 전투에서 스웨덴 군이 승리하나 아돌프가 전사하여 스웨덴 군은 철수할 수 밖에 없었으며 황제도 화평책을 쓰게 된다.

제4기(1635-1648)는 30년 전쟁의 발발 이래 끊임없이 신교 측에 원조를 보낸 흑막적인 존재인 프랑스가 개입하였고, 스웨덴도 계속 전쟁에 참여한다. 프랑스가 참여한 1635년에서 1648년까지의 마지막 전쟁의 13년간은 가장 파

피적 국면이었다. 처음엔 합스부르크가에 유리하였으나 프랑스와 스웨덴이 동맹을 맺은 후 전황은 합스부르크가 일방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점차 수세에 몰리게 되었고 페르디난도 2세가 죽고 페르디난도 3세가 황제가 되자 황제는 화평 교섭을 하게 된다. 프로테스탄트 진영과 가톨릭 진영은 뮌스터와 오스나브르크에서 유럽의 갈등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한다.

유럽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대규모의 마지막 종교전쟁이라 불리는 30년 전쟁은 처음에는 정치적 문제가 개입된 종교전쟁으로 시작하였다가 종교문제도 개입된 듯한 야만적인 정치적 전쟁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30년 전쟁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피해 역시 정확하게 기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쟁 중에 벌어진 약탈과 파괴와 살육은 하나의 역사적 신화를 만들어 냈다. 30년 전쟁에 최종적인 종결을 가지고 온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이다. 이 조약을 통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프랑스와 스웨덴이 많은 이득을 보았으며 스위스와 네덜란드는 독립을 얻게 되었다. 전후의 영국과 프랑스는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유럽의 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⁹⁰⁾ 30년 전쟁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합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였다. 비록 합스부르크가의 세습영지의 경우는 달랐지만 종교적인 면에서도 종교 개혁을 인정하고 독일 전역의 가톨릭과 루터파, 칼뱅파 신자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였다. 독일 국민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30년 전쟁을 통해 영방제후들의 권력과 권리는 크게 신장되었으며 특별히 독일은 여러 연방으로 분열되었다. 핵심적인 정치적 주체는 이제 더 이상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아니라 영방군주들이었다. 전쟁의 과정과 결말이 독일 정치가 영방으로 분열되는 것을 확인하고 고착시킴으로써, 신성로마제국의 분권화 과정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30년 전쟁으로 명목상의

90) 송요태, “30년 戰爭과 17世紀 유럽의 危機”, p.111.

신성로마제국이 그 규모나 의미에서 아주 초라해져서 사실상 그 핵심은 와해되었다. 그리하여 절대주의 시대 독일은 더 이상 독립적인 귀족과 자부심 강한 도시민의 독일이 아닌 중소 공국들의 독일이요, 궁정과 관료들의 독일로 변화했던 것이다.⁹¹⁾

30년 전쟁은 중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근세로 나아가는 하나의 커다란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30년 동안 약탈과 파괴와 살육을 겪은 제후들과 정치인들도 이제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안정된 경제력과 개방적인 사회제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유럽의 근대화와 절대주의 국가 성립에 강력한 자극제가 되었다.

91) 폴브록,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 p.110.

參 考 文 獻

- 남경태, 『인간의 역사를 바꾼 전쟁 이야기』. 서울: 풀빛, 1998.
- 선군성, 『St. Ignatius와 예수회의 成立』. 서울: 가톨릭敎育研究, 1986.
- 양병우 외, 『대세계의 역사7』. 서울: 삼성출판사, 1991.
- 이종완, 『유럽의 합스부르크 왕가』. 공주: 공주대학교 출판부, 2003.
- 마틴 키친, 『케임브리지 독일사』. 유종희 역. 서울: (주)시공사, 2001.
- 메리 폴브록,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 김학이 역. 서울: 도서출판 개마공
원, 2000.
- 슐츠 하겐, 『새로 쓴 독일 역사』. 반성완 역. 서울: 지와 사랑, 2000.
- 칼 하인츠 츠어뮐렌,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정병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
교서회, 2003.
- 김상태,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과 Julich·Kleve 상속분쟁문제.” 『세종대학
논문집』, 1983, pp.179-209.
- 김평중, “Habsburg 王家와 Valois 王家의 紛爭.” 『전주대학 논문집』, 제11집,
1990. 5, pp.179-201.
- _____, “Ottoman Turk의 東유럽 侵入.” 『전북사학』, 1985, pp.243-274.
- 송요태, “보헤미아 전쟁(1618-1620).” 『육군 제 3 사관학교 논문집』 제40집.
1995. 5, pp.67-90.
- _____, “30년 戰爭과 Gustav Adolf.” 『육군 제 3 사관학교 논문집』 제36집.
1993. 5, pp.59-80.
- _____, “30年 戰爭의 原因.” 『육군 제 3 사관학교 논문집』 제32집. 1991. 5,
pp.179-201.
- _____, “30年 戰爭과 17세기 유럽의 위기.” 『효성사학』. 1988, pp.89-113.
- 이규하, “크롬웰 治下의 英國의 對外政策.” 『전북사학』. 1977, pp.277-294.
- 이현균, “復古王政 초기 英國의 外交政策.” 『안동사학』. 1994, pp.229-273.

조만제, “프로이센 一研究.” 『경성대학교 논문집』 . 1990, pp.205-216.

Parker, Geoffrey, *The Thirty Years' Wa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4.